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4)
슬픔이 기쁨으로

[본문 요한복음 16:16-24]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6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16~18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도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이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실로진실로’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명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특별히 시제를 염두에 두십시오. 동사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미래진행, 과거완료인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라는 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면 신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도 똑같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속이나 어둠 속이나 태풍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너는 여호와를 앙망할찌로다’ 등의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뢰밭을 지나 갈지라도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섭고 고독한 것입니다. 각자 인생의 비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찾을 때는 즐겁습니다. 병마 속에서 죽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나듯 살아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입니다.

16~18절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요, 고난 안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직면한 고난과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기다림 곧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태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허무주의자, 실존주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인생에 대한 권태요, 지루함입니다. 그들은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주님과 달월의 시간입니다. 흥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기쁨’

17, 1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 앞에서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왜 자신이 기다려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이역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과 같은 암담함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정된 시간에 기차가 올 것을 믿고 기대감에 가득 차 찬송을 부르며 넉넉하게 기다립니다.

두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끝이 없다면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네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노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또한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의 기묘하고 깊은 의미와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의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네, 그분의 발자욱 소리가 들리네’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

랑을 기대하듯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등불을 켜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천국의 약속, 미래의 보장

고통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다리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리스도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태양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가난과 죽음을 당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하며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눈에 보이듯이, 손에 쥐어주듯이 말씀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역시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지만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한줄 한줄이 감격이요, 눈물이요, 기도가 됩니다.

새벽녘 주님을 만나는 감격에 아침잠을 떨치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될 것 같았던 것이 그르쳐지고 안 될 것 같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망할 것 같았던 일이 흥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라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축복과 기쁨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네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을 써주십니까! 저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붙잡힌바 된 후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을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라고 반문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날 바람으로 오셨고 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안에도 성령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이야기 하고 그분과 생각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영으로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모든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할 것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너무도 쉽게 알아집니다.

빠앗기지 않는 ‘기쁨’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 것ियो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천지창조 당시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돈 씀씀이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틀도 달라집니다.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과 고통을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해산을 하면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인해 그전에 겪었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통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 우리는 모든 아픔을 다 잊게 됩니다.

오늘 우울증과 신경과민 등 모든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14절과 15장 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16장에 반복되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으리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주리라’는 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14장 17절에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한 15장 26절에도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진리의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16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성령, 사랑, 평안,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을 오늘 2천후 온누리 교회의 새벽재단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